

인도 섬유 산업의 현황과 전망

◎ 인도 섬유 산업의 세계 세어 2015년에는 10%가 목표

인도의 섬유 산업은, 경제에 있어서 산업 생산력을 살펴보면 인도 국내 총생산(總生産)의 약 4%, 총 공업 생산고(總工業生産高)는 약 14%, 제조업 부문의 26%이며, 고용면(雇用面)에서는 국내 노동력의 21%이며, 외화 획득에서는 인도 국내 수출 수입의 약 17% 등으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종다양한 원료로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인도 국내에서 자기 완결(自己完決)한 밸류 체인(value chain)을 만들고 있는 점에서도 인도 산업계에서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인도 섬유 산업의 성장률은 최근 수년 동안 9~10%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다. 산업 규모는 수출 규제 폐지 전후의 2002~2005년도에는 370억 달러이던 것이 2006~2007년도에는 490억 달러로 커졌다. 그런 사이에 인도 국내 시장은 23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수출고는 140억 달러에서 190억 달러로 늘고 있다.

주요 수출 대상은 구주(歐州)로서 섬유 수출 세어(share)가 22%, 어패럴 수출 세어가 43%이며, 나라별로는 미국은 섬유 수출 세어가 10%, 어패럴 수출 세어가 32.6%로 톱이 되겠다. 그 외로는 중동이나 캐나다, 방글라데시(Bangladesh), 중국, 터키, 일본 등이 있다. 수출 품목 중에서도 기성복은 섬유 수출의 45%이고, 전체 수출의 8.2%로 높으며, 2009~2010년의 연간 성장률은 20%에 약간 미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카펫(carpet)의 수출 세어는 이미 세계의 36%를 차지하고, 성장률은 42%를 웃돌아 높이 솟아있다.

일본으로의 수출을 보면 2006년에 2005년과 비교하여 19% 늘기는 하였으나 세어율은 불과 0.1% 증가하여 1.2%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인도 무역 진흥국의 도쿄 주재국에서는 글로벌리즘(globalism)으로 구주나 미국의 세어율과 함께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08년 8월에 오사카에서 제 29회 인도 의류 제품전 및 제 19회 인도 가정용품전이 처음으로 함께 개최되었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세계의 섬유 어패럴 시장에 있어서 인도의 세어는 4%인데, 인도 정부는 2007년도에 스타트한 제 11차 5개년 계획으로 생산 설비나 기술의 정밀도 향상 등을 촉진하여 섬유 산업의 성장률을 현재의 9~10% 정도에서 16%로 높여, 최종의 2012년도에는 세계 세어가 7%, 2015년에는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독자적·전통적 섬유 제품의 다양화

세계의 섬유 어패럴 시장에서, 인도의 존재감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제 11차 5개년 계획으로, 최종 연도인 2012년에는 수출이 550억 달러, 인도 국내 소비로 600억 달러로 세계 세어는 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확대 정책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이, 원면 생산은 세계 제 2위, 면사 생산도 세계 제 2위, 셀룰로스 섬유·실 생산도 세계 제 2위, 견 생산도 세계 제 2위, 합성 섬유 실 생산은 세계 제 4위, 주트(jute : 黃麻) 생산은 세계 제 1위, 제직업의 세계 세어는 61%로 제 1위, 방추(紡錘)의 세계 세어는 22%, 면 무역의 세계 세어는 25%로 되어 있다. 또한 원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강점이며, 인도 국내에서 원료로부터 제품까지 잘 나뉘어져 있는 분업(分業), 또는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는 체제의 생산 배경일 것이다. 인도는 수방사업(手紡絲業)과 수직업(手織業)의 분야로부터 자

본 집약형의 고도의 공장까지 다양화하고 있으며, 전통 문화나 농업 등과의 긴밀한 제휴와 같은 독자성 등, 다른 나라의 섬유 산업보다도 유니크(unique)한 특징이 많다.

인도 국내에서 가장 큰 제조업인 면/합섬 섬유 공장 산업은 약 100만 명의 노동자와 많은 관련 조직을 갖고 있다. 3,537만 추와 45만 로터(rotor : OE紡)의 생산 시설과 소규모의 공장은 제외하고도 1,818개 이상의 방적 공장이 있으며, 2006~2007년도의 방적사 생산량은 3만 7,910 톤을 자랑하고 있다. 합성 섬유/필라멘트 산업은, 셀룰로스 및 비(非)셀룰로스 원료로부터 합섬 장섬유를 생산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성 장섬유의 생산량은 2006~2007년도에 전기(前期)와 비교하여 11% 상승하였다.

방적 제직 섹터(紡績 製織 sector)는 분산 배치 되어 있으며, 인도 국내의 류 수요를 담당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인도 국내 195만대 이상의 제직 시설로 생지와 가공품 분야에서 다채로운 품목을 생산하여, 약 486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주트(jute)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과 세계 제 2위의 수출량을 자랑하며, 약 400만 세대의 생활을 받쳐주고 있다. 실크 섬유 산업은 세계 제 2위의 전 생산량뿐만 아니라 누에나 ‘에리산(인도 原産의 野蠶)’ ‘다살산’ ‘무가산’의 네가지 종류의 실크를 생산하고 있다. 양잠업은 인도 국내 가내 공업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5만 4,000의 농촌에서 생산하고 있다. 모직물 섬유 산업은 세계 울(wool) 제품 생산 제 7위이다.

인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수직 제품 산업(手織 製品 産業)은 전통적인 직공 커뮤니티(職工 community)로 여러 세대나 장인의 기술을 이어받아 ‘핸드 룸 마크(hand-loom mark) 인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품질이나 예

술성을 보증하고 있다. 2006~2007년의 수직포 생산량(手織布 生産量)은 약 68억 7,100만 평방미터(m²)가 된다.

카펫(carpet)을 포함한 수공예품(手工藝品)은, 취업 인구 약 640만 명 중 약 반수는 여성의 숙련공이 차지하고 있다. 소액 투자로 큰 리턴(return : 高附加價值, 材料를 現地에서 調達하는데 따른 安定性和 輸出의 증가)이 생기며,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요 몇 해 사이에는 “세계적인 에콜로지(ecology)의 흐름을 타고, 원래 잘 알고 있는 오가닉 코튼(organic cotton)뿐 아니라, 내추럴(natural)을 살리려는 섬유 제품이 잘 팔려 인도섬유 산업의 성장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고 인도 무역 진흥국에서는 말하고 있다. 생산량이 세계에서 제 1위인 오가닉 코튼의 2007년 수출량은 1만 4,000 톤이었다.♣